



담양의 5월 ... 대나무축제 관방천 인파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휴일인 2일 담양군 담양읍에서 열린 '제12회 대나무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는 관방천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27.6도로 울들어 가장 높았다. /담양=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어린이날 선물 '엄마는 고민 중'

### 휴대폰·게임기 열풍 속 '실랑이'... 고가품 부작용 우려도

"엄마는 아들과 휴대폰 전쟁(?) 중"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이 급증하면서 요즘 자녀와 실랑이를 벌이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특히 5월을 맞이하면서 학부모들은 고민에 빠졌다.

5학년 이상 초등 고학년생이나 중학생들이 휴대폰 소유가 일반화되면서 어린이날을 맞아 수십만원에 이르는 고가 휴대폰이나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르기 때문이다.

'아이폰'이나 '연아폰' 등 최신 휴대폰은 가격이 70만원에서 100만원에 가깝고, 년련도 게임기도 20만원이 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고가선물이 자칫 자녀교육에 해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최모(43)씨는 "중간고사 때 시험성적이 좋을

경우 닌텐도를 사주기로 약속했다"며 "들어가는 돈도 부담되지만 게임기에 정신이 팔려 학업을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동통신업체들이 청소년을 겨냥해 'EBS 모바일 교육서비스'를 실시, 스마트폰에서 수능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대당 70만원을 넘어서는 스마트폰도 선물목록에 추가됐다.

중학생인 정모(15)양은 "요즘 공짜폰을 들고 다니면 친구들이 우습게 본다"며 "어린이날도 있고, 중간고사도 잘 봐 아이폰을 사달라고 부모님을 조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41)씨는 "같은 반 또래들이 대부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며 딸아이가 연아폰을 사달라고 해 고민하고 있다"며 "굳이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이 맞는 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

다. 그러나 교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고가 선물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 사이에서 위화감 조성, 지나친 정보 습득에 따른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높은 학업성적을 대가로 고가선물을 주는 것이 반복될 경우 자녀의 잘못된 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병훈(47) 광주시청소년년상담지원센터 소장은 "아이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선물도 교육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에게 적절한 좌절감을 주는 것도 필요하며, 비싼 물건을 별다른 노력없이 부모로부터 선물받는 것은 경제 개념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풍암동 빙상장·수영장

내빙상장과 수영장을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 어린이날 무료 개방

광주시 도시공사는 또 광주 첨단지구 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

광주시 도시공사가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일 서구 풍암동 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교과부 "조선대 이사회 이사장 선출 등 적절"

조선대 이사회가 "7인 이사체제"에서 처리한 이사장 선출 등 51건의 안건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선대는 2일 "정원에서 2명이 부족한 7인 이사체제에서 진행된 4차례 회의와 안전처리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권한 행사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유권해석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만 정이사 선임이 안될 경우 7인 체제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린 것은 이사회 권한 밖의 결정이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이사 총정원 9명 중 지난 1월1일 7명이 선임돼 정상화됐으나 결원이사 2명은 3월11일 선임됐다. /채홍희기자 chae@kwangju.co.kr

이사회는 7인 이사체제에서 이사장 선출, 예산심의와 의결 등 5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결원이사 2명이 옛 경영진 추천인들로 선임된 이후 논란이 시작됐다. 애초 7인 이사체제에서 이사장 선출·정관 변경 등에 동의했던 박모 이사와 이틀 2명의 이사 등 옛 경영진 추천 이사 3명이 7인 체제에서 처리된 이사장 선출을 비롯한 안건의 재심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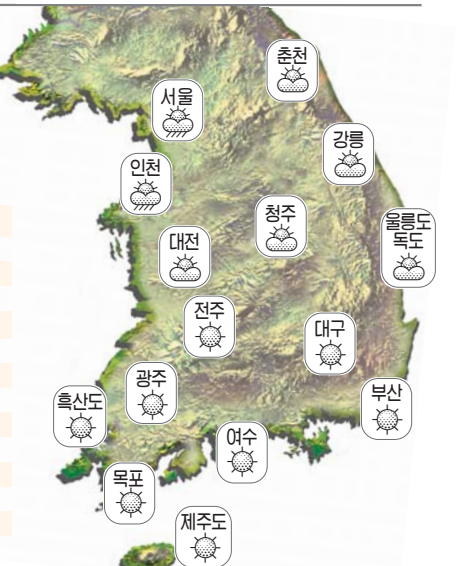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조선대 법인은 최근 교과부에 박이사 등이 제기한 이사장 선출 재심 등의 문제를 질의, 법인 정관 변경을 제외한 모든 행정은 정상적인 권한 행사라는 답변을 받았다. /채홍희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0분 해질 19시 19분 달돋이 -시-분 달질 09시 08분

### 벌써 초여름~?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16/27℃
목포	맑음	16/22℃
여수	맑음	15/21℃
완도	맑음	14/23℃
구례	맑음	14/26℃
해남	맑음	14/23℃
장흥	맑음	14/23℃
고흥	맑음	14/25℃
순천	맑음	15/25℃
영광	맑음	16/23℃
진도	맑음	14/23℃
전주	맑음	15/27℃
남원	맑음	9/25℃
옥산도	맑음	13/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1.0~2.0m	높음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0.5~1.5m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5:19	10:31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11:37	06:0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날씨						
최저/최고	14/27	14/23	15/20	12/23	8/21	10/20

### 31사단, 6·25 전사자 유해발굴 나선다

#### 지리산·영광·화순 일대

향토 사단인 육군 제31사단(사단장 모종화)이 올해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나선다.

31사단은 3일 지리산 화염사에서 유해발굴 개토식을 갖고 지리산, 영광, 화순 일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에 착수한다.

지역별로는 ▲지리산 노고단~반야봉(3~14일) ▲영광군 불갑면 용천사(17~21일) ▲화순군 백야산(24~28일) 등에서 대규모 발굴작업

이 이뤄진다.

또 이번 발굴사업에서는 6·25 당시 남부군 4000여명을 토벌하기 위해 백야전투사령부가 작전을 펼쳤던 지리산 반야봉 일대에 대한 첫 발굴작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31사단 관계자는 "올해는 전쟁 60주년을 맞아 하루 평균 100여명의 장병을 동원해 대대적인 발굴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호국 용사들이 하루빨리 유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WELCOME TO JEONNAM

엘도라도리조트

서늘미스 캐리온행: 5월 17일부터

(최신형 리무진 관광버스)

15,000원(주중) 왕복

18,000원(주말) 왕복

남해관광(0911) - 광주역 - 미스터미널 - 삼우역 - 흥정역 - 중도(영도리조트)

기간 : 2010. 5.7(금)~5.9(일)/3일간

장소 : 장성공설운동장, 함흥강변, 홍길동테마파크

# 홍룡축제